마지막의 모습들

4 연속 2주간, 4 번 설교 2021, 2022

연속적 시 주제 4 번 2021

기억 본문: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니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이러하며 대대로 기억할 바니라 하셨음을 출애굽기 3:15 - 요한 3:14 b

"And he said unto them, I am an Eternal, and I have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ich hath made the sea and the dry land. NOT – Jonah 1:9

"하나님이 그가 모든 것들을 보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시간의 연속에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시간의 연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 것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all, how did it impact the whole first coming of Jesus centuries later?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 성벽 앞에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세기 전에 영감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바벨론 성을 정령하고 포로 자녀들이 해방될 길을 준비할 때 해야 할 실제 일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다." PK 551.1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행할 것이라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네가 건축되리라, 성전에게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셨도다. '내가 그를 의로 일으키며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며 나의 포로들을 값이나 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놓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4:28; 45:13." PK 551.2

메디아-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진군한 고레스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기록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벨사살이 향락과 치명적인 방탕의 밤에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고레스 앞에 두 잎이 달린 문을 열어 왕국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메대인과 페르시아인들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고레스의 승리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 예언한 성경 구절을 들려주며 고레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낀 고레스는 감동을 받아 포고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2-11 -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의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 누가 있느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가 머무는 곳에 남는 자는 그 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유의 제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돕게 하라. 그 때에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러 올라갔더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재물과 짐승과 귀한 물건과 기꺼이 바친 모든 것 곁에 손을 굳게 잡았더라.

또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전 그릇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으니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스레다의 손으로 가지고 나와서 유다 왕자 스바살에게 그 수를 세었더라. 그 수는 이러하니, 금병 삼십 개, 은병 천 개, 칼 구십 이십 개, 금 대야 삼십 개, 두 번째 종류의 은 대야 사백 열 개, 기타 그릇 일천 개였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모든 그릇은 오천 사백 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서 쉬바살이 그들과 함께 가져온 것이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이 고레스와 같은 정신으로 계속 통치했다면 이 왕국이 오늘날까지 존속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은 그레시아로, 그레시아는 로마로, 로마는 오늘날의 국가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왕국들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advent of the army of Cyrus before the walls of Babylon was to the Jews a sign that their deliverance from captivity was drawing nigh. More than a century before the birth of Cyrus, Inspiration had mentioned him by name, and had caused a record to be made of the actual work he should do in taking the city of Babylon unawares, and in preparing the way for the release of the children of the captivity. Through Isaiah the word had been spoken:" PK 551.1

"'Cyrus, he is My shepherd, and shall perform all My pleasure: even saying to Jerusalem, Thou shalt be built; and to the temple, Thy foundation shall be laid." "I have raised him up in righteousness, and I will direct all his ways: he shall build My city, and he shall let go My captives, not for price nor reward, saith the Lord of hosts." Isaiah 44:28; 45:13." PK 551.2

Cyrus, under whose command the Medo-Persian army marched into Babylon, had not yet been born when the prophet Isaiah wrote of him. But God remembered His promise and when Belshazzar felt perfectly secure on the night of revelry and fatal debauchery, God opened before Cyrus the two-leaved gates and made possible the capture of the kingdom. There the Medes and Persians met Daniel and his companions, who called Cyrus' attention to the Scriptures which not only predicted his victory, but even foretold his name. Having seen and felt the power of God, Cyrus was moved to decree:

Ezra 1:2-11 – "Thus saith Cyrus king of Persia, The Lord God of heaven hath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th charged me to build Him an house at Jerusalem, which is in Judah. Who is there among you of all His people?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up to Jerusalem, which is in Judah, and build the house of the Lord God of Israel, (He is the God,) which is in Jerusalem. And whosoever remaineth in any place where he sojourneth, let the men of his place help him with silver, and with gold, and with goods, and with beasts, beside the freewill offering for the house of God that is in Jerusalem. Then rose up the chief of the fathers of Judah and Benjamin,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with all them whose spirit God had raised, to go up to build the house of the Lord which is in Jerusalem. And all they that were about them strengthened their hands with vessels of silver, with gold, with goods, and with beasts, and with precious things, beside all that was willingly offered. Also Cyrus the king brought forth the vessels of the house of the Lord, which Nebuchadnezzar had brought forth out of Jerusalem, and had put them in the house of his gods; even those did Cyrus king of Persia bring forth by the hand of Mithredath the treasurer, and numbered them unto Sheshbazzar, the prince of Judah. And this is the number of them: thirty chargers of gold, a thousand chargers of silver, nine and twenty knives, thirty basons of gold, silver basons of a second sort four hundred and ten, and other vessels a thousand. All the vessels of gold and of silver were five thousand and four hundred. All these did Sheshbazzar bring up with them of the captivity that were brought up from Babylon unto Jerusalem."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if the rulers of the Medo-Persian empire had continued to rule in the same spirit as Cyrus, the kingdom would have stood until this day. That kingdom, though, gave way to Grecia; Grecia, to Rome; and Rome, to the nations of today. Plain enough it is to see that the kingdoms of today still stand because God has purposed it so.

6월 27일 금요일

추가 생각

"행동의 무대에 오른 모든 국가는 지상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되어 감시자와 거룩하신 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의 위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들 각각은 힘이 약한 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각각은 시험의 시기를 겪었고, 실패하고, 영광이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PK 535.1

"국가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하고 그 거부로 인해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지만, 신성한 지배 목적이 여러 시대에 걸쳐 분명히 작용해 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갈대아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놀라운 시선 앞에 지상의 통치자들의 일과 관련된 지배 권능을 드러내는 상징이 그려졌을 때 그 놀라운 표상 속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PK 535.2

"에스겔은 체바르 강 유역에서 북쪽에서 오는 것 같은 회오리바람을 보았는데, '큰 구름과 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호박색과 같은 광채가 났습니다'. 서로 교차하는 여러 개의 바퀴가 네 생명체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파이어 돌의 모양과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있었습니다.' '그룹들 가운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1:4, 26; 10:8. 바퀴의 배열이 너무 복잡해서 언뜻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바퀴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서 손으로 지탱하고 인도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그 바퀴를 돌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사파이어 보좌 위에 영원한 분이 계셨으며, 보좌 주위에는 신성한 자비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PK 535.3

"수레바퀴 같은 복잡한 일들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의 인도 아래 있듯이, 인간사의 복잡한 일들도 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나라들의 분쟁과 소란 속에서도 그룹 위에 앉으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인도하신다." PK 536.1

"국가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게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서 한 자리를 배정하셨다. 오늘날 인간과 국가들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PK 536.2

"Every nation that has come upon the stage of action has been permitted to occupy its place on the earth, that the fact might be determined whether it would fulfill the purposes of the Watcher and the Holy One. Prophecy has traced the rise and progress of the world's great empires—Babylon, Medo-Persia, Greece, and Rome. With each of these, as with the nations of less power, history has repeated itself. Each has had its period of test; each has failed, its glory faded, its power departed. PK 535.1

"While nations have rejected God's principles, and in this rejection have wrought their own ruin, yet a divine, overruling purpose has manifestly been at work throughout the ages. It was this that the prophet Ezekiel saw in the wonderful representation given him during his exile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when before his astonished gaze were portrayed the symbols that revealed an overruling Power that has to do with the affairs of earthly rulers. PK 535.2

"Upon the banks of the river Chebar, Ezekiel beheld a whirlwind seeming to come from the north, "a great cloud, and a fire infolding itself, and a brightness was about it, and out of the midst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A number of wheels intersecting one another were moved by four living beings. High above all these "was the likeness of a throne, as the appearance of a sapphire stone: and up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the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above upon it." "And there appeared in the cherubims the form of a man's hand under their wings." Ezekiel 1:4, 26; 10:8. The wheels were so complicated in arrangement that at first sight they appeared to be in confusion; yet they moved in perfect harmony. Heavenly beings, sustained and guided by the hand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were impelling those wheels; above them, upon the sapphire throne, was the Eternal One; and round about the throne was a rainbow, the emblem of divine mercy. PK 535.3

"As the wheellike complications were under the guidance of the hand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so the complicated play of human events is under divine control. Amidst the strife and tumult of nations He that sitteth above the cherubim still guides the affairs of this earth. PK 536.1

"The history of nations speaks to us today. To every nation and to every individual God has assigned a place in His great plan. Today men and nations are being tested by the plummet in the hand of Him who makes no mistake. All are by their own choice deciding their destiny, and God is overruling all for the accomplishment of His purposes." PK 536.2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